월요논단

재단화가 사유화인가: 제주돌문화공원의 공공성 논란

김 영 호
한국박물관학회 명예회장·미술사가

제주돌문화공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사유화' 의혹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한동수 위원장이 발언의 주인공이다. 돌박물관 옥상에 자리한 하늘연못이 장기간 통제되고 있으며, 박물관 내 특정 전시실을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돌문화공원을 재단화·민간화를 통해 사유화하려는 특정 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추론의 날을 세운 것이다. 도내 언론에 보도된 그의 주장을 보면 논리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질문이 생긴다. 누가 무엇 때문에 제주돌문화공원을 사유화하려 한다는 것인가? 재단 설립이 사유화로 가는 길인가?

나는 두 달 전 본지의 칼럼에서 '돌문화공원 하늘연못 보수 논란' 등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이 순환보직으로 소장직을 맡는 현재의 운영방식에 한계가 있으며,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독립적인 운영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재단 설립은 지속가능한 문화공원의 공공성을 위한 근본적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물관과 문화공원은 도로·하천과 같은 일반 행정시설과 성격이 다르다. 문화유산의 보존, 전시기획, 학술연구, 교육, 국제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면 전문성이 축적돼야 한다. 그러나 소장이 행정직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운영된다면 임기와 조직의 특성상 장기적인 비전과 책임 있는 경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제주4·3평화공원이 제주도 관리체계 안에서 운영되지만 4·3평화재단을 통해 전문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재단 설립은 이러한 행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선택이다. 물론 재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설립 과정에서 공공성·투명성·책임성을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 이사회 구성, 출연재산, 회계와 감사, 도의회의 감독, 운영정보 공개 등 명확한 공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재단 설립을 검토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특정 세력의 사유화'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사유화라고 주장하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공공재산을 사적으로 지배하려 하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재단화와 사유화는 제도적으로도 개념적으로도 동일하지 않다.

제주돌문화공원을 둘러싼 문제는 추측이 아니라 사실과 자료로 판단할 일이다. 근거 없는 '사유화' 프레임으로 제주돌문화공원의 공공적 가치와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주도의회는 '사유화 의혹'을 제기한 만큼 그 구체적인 근거와 증거를 공개해야 한다. 재단화 검토와 사유화 의혹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제주의 공공문화자산에 대한 논의를 정치적 의혹 제기가 아닌 객관적 자료와 검증의 장으로 돌려놓을 것을 권고한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정의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

사설

생계 위협하는 임금체불 해소 만전 기해야

제주지역 임금체불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간 청산되지 않은 임금체불도 적지 않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167억3000만원이다. 매달 평균 20억90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이 근로자에게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 이 기간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은 모두 888곳이다.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총 215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896명은 내국인이고 나머지 254명은 외국인이다. 임금체불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건설업에서 두드러졌다. 전체 임금체불 사업장 중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322곳으로 전체의 36.2%를 차지했다. 그다음 건설업이 246곳(27%)으로 뒤를 이었다. 임금체불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체불규모는 건설업이 가장 많았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서다. 건설업의 임금체불 액수는 63억1700만원으로 전체의 37.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미분양 규모가 3000호를 넘어서면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임금체불이 늘어난 결과다. 특히 임금 40억4500만원은 아직도 청산되지 않았다.

임금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로 제때 지급돼야 한다. 임금체불은 노동자 개인의 생계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임금체불 근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제주도는 추석을 앞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임금체불 해소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제주 2035 탄소중립, 정부 뒷받침 절실하다

제주자치도가 '2035 탄소중립' 정책의 성공을 위해 제주권 해상풍력의 국가 전력계획 반영과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망 이용료 면제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뿐만 아니라 전력망과 저장시설,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주권 해상풍력 5GW를 권역별 개발물량으로 반영하고, 추자해상풍력 2.37GW를 핵심 후보물량으로 우선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에서 생산한 전력을 육지로 보낼 수 있도록 국가계통 연결도 건의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직접전력구매계약(PPA) 자원과 배전망 ESS의 망 이용료 면제, 제주 특성을 반영한 전기요금제 마련도 요청했다.

제주의 '2035 탄소중립'은 지역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아무리 늘려도 이를 수용할 전력망과 저장시설이 따라가지 못하면 출력제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특히 ESS는 남는 재생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간에 공급해 계통 불안정을 줄이는 핵심 시설이다. 여기에 망 이용료를 부과해 사업성을 떨어뜨린다면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제주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계통 부족과 출력제어 문제를 먼저 경험하고 있다. 제주에서 해법을 찾는다면 국가 탄소중립 정책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 '탄소중립'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

열린마당

서로를 살피는 마음이 안전한 추석을 만듭니다

문 희
제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추석이 다가오면 마음이 조금씩 분주해진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하지만 모두에게 추석이 기다려지는 시간인 것은 아니다. 누군가에게 명절은 가족 간 갈등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다.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교제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역시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쉽게 드러나지 않고 반복되기도 한다.

특히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고, 음식 준비와 경제적 부담, 가족 간의 민감한 대화, 과도한 음주 등이 겹치면서 작은 갈등이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은 재발 우려가 있는 가정과 피해자의 안전을 미리 살피고, 연휴기간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한 명절은 경찰의 노력만으론 완성되지 않는다.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갈등의 순간 잠시 마음을 가라앉힐 여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관심이 함께할 때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다.

이번 추석에는 맛있는 음식과 웃음소리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안전하게 명절을 보내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추석이 되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 청년들이 만들어간 '청년의날' 행사

19일 제주시 북수구광장서

○…제주 청년들이 기획부터 진행, 무대 출연까지 직접 만들어간 '청년의날' 행사가 성료.

지난 19일 제주시 북수구광장에서 열린 '2026 제주청년의 날 기념식'은 위성곤 지사,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김한규 국회의원, 김건 제주청년주권회의 운영위원장, 양유준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현황빈 제주한라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을 비롯해 청년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들이 각자의 취향과 개성을 드러내며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

위성곤 지사는 "오늘 북수구광장이 청년들의 에너지로 넘쳐나고 있다"면서 "청년들이 꿈을 갖고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위해 힘차게 뛸 수 있도록 도정이 함께하겠다"고 강조. 오소범기자

연휴 분야별 종합대책 추진

○…서귀포시가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9월 24~29일) 분야별 종합 대책을 시행.

20일 시에 따르면 분야별 종합대책은 ▷재난관리체계 및 방범활동 강화 ▷물가안정 관리로 민생경제 활력 도모 ▷비상진료, 감염병 및 식중독 발생 대비 의료 체계 구축 ▷교통사고 예방활동 ▷생활쓰레기 수거, 상하수도 시설 및 녹지 시설물 일제 점검·정비 ▷관광사업체 안전 점검 및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어려운 이웃돕기 ▷환경오염 상황 적극 대처 등으로 구성.

시 관계자는 "'안전은 더하고, 온기는 나누는' 풍요로운 추석 연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백금탁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고합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등
• 피고인 한건현
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산지관리법위반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의 점은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6. 4. 23.
판사 서 범 욱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묘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ㅇ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ㅇ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ㅇ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토박이
제주산담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대행
벌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억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종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의사
616-08-85402